

[목회자 모임-요한복음]

3. 하나님이 함께 하는 말씀

2019. 5. 10.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희랍사람들은 개념이 말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말은 말대로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이기 때문에 수사학을 공부했다. 정치를 하려면 사람을 설득해야 하므로 언변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대학은 수사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희랍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말과 사람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말과 사람이 분리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니까 에서가 뒤늦게 별미를 가지고 왔을 때, 희랍 사람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 모양이니 다시 하자고 하면 된다. 그런데 이삭은 내가 축복을 다 해버려서 너를 축복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말로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축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은 길썬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창49:17)라고 했다. 이것은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에서 꼼짝 없이 물리는 것이다. 그렇기까지 저주의 말을 했다.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속으로 좀 입든지 그렇게 보이더라도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데도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과 말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는다.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도장 찍은 것처럼 그냥 그 사람 자신인 것이다. 그 사람들은 말한 것 자체가 그냥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할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라고 할 때도 빛이 있으라는 것과 빛이 있다는 것이 분리가 안 된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다. 따로 갈라져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회랍화 되어 있다. 지금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좋은 말로 축도를 한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효과가 없어도 축도를 한다. 나는 축도를 별로 해보지 않았지만 축도를 하고 나면 내가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냥 축복이 되면 좋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결혼식에서 좋은 말씀을 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뒤에 가서 싸워서 이혼한다고 하면 참 속상하다.

회랍 세계에 오면 말과 사람이 분리된다. 이것이 편리하기는 편리하다. 말은 말대로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있으니까 적당하게 필요한대로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히브리사람들은 그러 것이 안 된다. 그들은 말과 사람이 하나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참 어렵다. 말과 사람이 똑 같아야 되기 때문이다. 언행일치가 쉬운 것이 아니다. 언행일치가 되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이다.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100% 언행일치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렵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을 원시적이라고 해야 할지, 그것이 원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부 히브리 사람들의 말이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고 했다.

하나님이 계시지 어떻게 말씀이 계시는가? 그런데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고 했다. 회랍사람들은 로고스가 따로 있고 사람 말이 따로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둘이 합해서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회랍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상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로고스가 하나님이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로고스가 회랍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도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 사람이 말하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전에 성경대로만 하

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성경대로 해도 결국 나는 나고 말은 말이다. 결국 말과 나는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문제이다.

지식은 그렇게 말해도 된다. 지식과 나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 따로 성경 말씀 따로 해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나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학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겠는가? 아니면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문제다.

내가 성경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그냥 성경일 뿐이다. 그런데 교리에 안 틀리게 말해야지, 성경에 틀리지 않게 말해야지 하니까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런데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라고 딱 묶어 놓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묘하게 묶어놓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요 1:14)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됐으면 당연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한 것이다. 좀 어렵고도 난해한 말씀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가 내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내가 믿는 것이 그냥 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가 내안에, 내가 그 안에’이기 전에는 믿는다는 것이 갓바위 돌부처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은행을 신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면 공허하다. 다 맞는 것 같은데도 공허하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해서 맞는데 이상하게 공허하다.

옛날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힘써서 했는데도 공허했다. 공허하지 않고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만큼 자기도 충만하면 좋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열심히 했는데, 하고나면 공허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공허하다. 천당에 간다는 소망이 없으면 공허해진다. 뭐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는 자기고 사업은 사업이다. 참 평생을 해도 어려운 문제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문제이다.

둘이 하나가 아닌데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애를 썼고, 보다 완전하게 해보려고 했다. 보다 더 성경에 가깝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역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산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해주소서. 듣는 자로 하여금 감동 감화하게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단위에 올라간다. 그것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도 해놓으니까 마음을 놓고 올라가는 것이다.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하는 이것이 되는가? 안 된다. 어떻게 나는 가려놓고 내 말만 나오겠냐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될 일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위로가 되니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알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니다. 강단에서 해도 내 말이다. 강단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속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다.

이삭이 한 말은 이삭 자신이다. 이 사람은 다 줘버려서 더 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의 축복이라는 것은 상속권이기도 한 것인데, 모든 권위를 위임해 주는 것이다. 가부장적 제도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그것을 다 주는 것이었다. 한 번 주었다가 내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해야겠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논밭 문서를 다 줘놓고 도로 가져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유태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생명 안에서는 맞는 말이다. 짓는 것이 개니까 짓는 것이다. 누구에게 배워서 짓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 말은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인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시인하고 듣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게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내가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했는데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 성경!’하는 것도 허황하다. 교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성경이 필요 없는가? 그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을 확인하려면 또 성경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됨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하나됨이 필요하다.

연합(聯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연합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시원하지 않다. 확신할 수 없다. 구약을 읽으면 다 약속이고 답이 없다. 신약에 오면 완전하게 답이 있지만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약의 말씀이 도로 내게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말하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별 것이 다 있다.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찍은 것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속았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도장을 받았는데, 아주 근사한 도장으로 찍었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니까 주식회사가 없어졌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주식회사는 있는데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소용없어진다. 대표이사가 끝나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도장을 받지 않으면 그 증서가 아무 소용없다. 돈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적인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도장 밑에 개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보면 자기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 뺏기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대표이사를 한다.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 것도 없다. 법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했다가 큰일 날 뻔 했다.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게 몇 년간 늘 와서 공을 들인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관촬아보였다. 그래서 어지간 하면 그 사람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내놓고 맡겼다. 그랬더니 이창용형제가 꼼꼼히 따져서 이 문제를 갈라냈다. 재산이 얼마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는 도장을 찍어도 우리에게서 헛일이 되는 것이었다. 아주 큰 것을 배웠

다. 잘못했으면 교회당을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곳에서도 돈을 받지 못한다. 감옥에 보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아무 것도 없으니까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

희랍화되고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과 사람이 다른 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야 되고, 사람의 말은 사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 말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할 수도 없다. 둘이 하나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자기 말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말이어야 된다. 내말인데 하나님 말이어야 한다. 바울이 한 말은 다 바울의 말이다. 하나님 말로 어디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도저히 사람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이다.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큰 소리로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든지 간에 그래서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자기 말로 해야 한다. 남의 말을 할 수 없다. 책에서 그렇다고 말하려면 책을 보라고 하지 뭐 하러 말을 하겠는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더라도 하려면 뭐 하러 말씀을 하겠는가? 성경을 보라고 하면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자기 말이 됐을 때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이니 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할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수고로움이 없다. 자기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의 말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쉬운 것 같지만 너무 힘들다.

목사님들 집에 가면 저녁꺼리가 없을지라도 책은 가득 있다. 목사들은 돈 생기면 책을 산다. 친구 집에도 가보니 책을 얼마나 많이 사두었는지 모른다. 평생 설교를 하려고 하면 웅색할 때가 많다. 자기 지식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내가 이 지식을 다 폐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말이 되었을 때만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자기 말일 때만, 자기 말과 하나님 말이 같을 때만, 하나일 때만, 사역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자면 그분과 연합이 없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아예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놓았다. 처음부터 홀로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그 말을 넣어 놓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하고서 그 뒤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고.’라고 집어넣어 놓았다. 그냥 아담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합해야 아기가 나온다. 모든 만물이 전부 그 원리로 지어져 있다. 어느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해보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가져다 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책에 써놓았다고 쓸 수 있겠는가? 어림없는 일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분과 내가 하나된 것만큼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안에,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17:21)라고 했다.

요한복음에서 이런 오묘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 희랍인들이 이것을 들으면 ‘아 로고스가 있었구나.’ 이렇게 들릴 것이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희랍인들은 또 생각했다. ‘아 그것은 데오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라는 그 말씀이다.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말씀이다. 예전에 읽을 때는 바꾸면 되지 왜 못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방금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 가버려서 내가 더 줄 것이 없다고 한다. 무슨 물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한 것인데, 취소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취소할 말을 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물건은 취소하면 되는데,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세계로 불렀다. 사역자로 부른 것은 이런 세계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했다.

어디도 누구도 증인이 되라고 한데는 없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 석가모니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한데가 없다. 예수님만 한 말이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이리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증인이 되려면 그것도 또 문명 안에서 생각해보면 변호사가 있고 증인이 있고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증인은 바로 그 사람과 하나여야 한다.

박**씨를 변호한다고 처음에 약 30명을 불러 놓았다.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변호할 사람이 없다. 박**씨 마음에 맞도록 변호를 하겠는가?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변호인이 하나도 없다. 너무 불쌍하다.

변호사들은 그 말을 안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그때 세월호 진실이라고 하길래 무슨 공작을 했는가 생각했다. 내가 바닷가 사람이라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는 것인데, 왜 그러는지 무슨 비밀이 들었는가했는데 비밀은 무슨 비밀인가? 아무것도 없다. 몇 년간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잘못하면 가라앉는 것이지 아무 이유가 없다. 잘못해서 배가 뒤집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진실을 밝히라고 한다. 진실을 밝히라고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는가?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진짜 진실을 밝히려면 그 배를 누가 사웠는지? 왜 이 배가 거꾸로 뒤집어 졌는지? 이런 것이 비밀이다. 왜 배가 거꾸로 넘어졌는가? 위로 한 층을 더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층을 올린 것은 누가 올렸는가? 누가 허락을 했으니까 올렸을 것이 아니겠는가? 배를 만들 때 배가 물에서도록 하중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밑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밑에 층에 물을 넣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세월호는 거꾸로 뒤집어 졌다. 위에 한 층을 올려놓았으니 무게가 얼마인가? 그래서 넘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한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증인이 필요하다. 조금 증거 하더라도 증인이 필요하다. 거창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 가지라도 증거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를 증거 하려면 무엇을 증거 하겠는가? 죽어서 뛰어내릴 수 없는 것을 증거 하는 것 말고 내가 증거 할 것이 없다. 내가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해 놓으니깐 상당히 시끄럽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시끄럽다. 제일 쉬운 것인데 말이다.

증인이 되려면 생각해보라.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였다고 내가 그 증인이 되겠는가? 눈으로 봐도 내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거는 하겠지만 그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없기 때문에 증거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기 때문이다. 나 자신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제일 쉬운 것을 택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어려운지 아니면 다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망설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처음에 너무 쉽다고 다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져버렸다. 우리는 그의 증인들이다. 큰 증인이 아니라도 좋다. 작은 것이라도 증인이 되면 좋다.

자기로 증거하고 자기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면 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또 증인이 되면 된다.

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데도 가보았고, 장님이 눈 뜨는 데도 가보았다. 나도 구경은 다 했다. 다했는데 증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인데 이러이러해서 고쳤다는 것을 보았으면 증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런대로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결국은 못 뛰어내렸구나. 그것밖에 증인이 안 된다.

나에게는 자격이 그것밖에 안 된다. 나도 당장 그렇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마4:3)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사람이 돼지처럼 먹으려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좋다고 했다.

그런데 속으로는 떡을 만들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 속으로는 사실은 떡을 만들 수 없는데,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마4:5,6)고 했을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4:7)고 대답하셨다. 그것도 말씀이 좋았다. 떨어지면 죽을 텐데 시험을 하라는 것이니까 떨어지면 죽는구나. 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런 대로 은혜가 되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와서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갈 데가 없다. 핑계할 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 자리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 외에는 모을 데가 없다. 다른 데는 모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다른 데는 하나 되게 모아 놓을 데가 없다. 부활의 자리에도 아직은 함께 모일 수 없다. 어디에도 우리가 온 인류가 한 자리로 모일 데가 없다. 조금이라도 더 살수 있다면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이 일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요1:1)

함께 있으려면 하나여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면.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는가? 그만큼 나오는 것이다. 함께 있는 정도만큼 나오는 것이다. 거창한 것을 바랄 것이 없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족하고 감지덕지다.

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다. 크면 따먹는 것이 쏠쏠하게 재미있다. 버려질 흙에서 고추도 나오고 상추도 나오는 그런 황재가 어디 있는가? 흙이 그런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의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이다. 시시한 것 같지만 생명 안에서는 너무 필

요한 위치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 적당한 위치이다.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쓸모없는 자리이다.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구세주가 되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리이다. 그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연합할 데가 없다.

내 생각이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자기와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야 농사를 짓는다.

생땅에 무엇을 심어 놓으니까 안 된다. 언덕을 개간 하는데 거기에 개나리를 꽂아 놓았더니 몇 년이 가도 안 크다. 진흙에 꽂아놓으니까 가 봐도 그 모양, 가 봐도 그 모양이다. 그것을 만약에 좋은 흙에 꽂아 놓았더라면 얼마나 잘 컸겠는가?

좋은 흙이 무엇인가? 썩은 흙이다. 농부 생각과 흙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나는 쓸모없는데 하나님은 쓴다. 이것은 아무 짝에 쓸모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쓴다.

나를 부르신 분을 보니까 뭘 보고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번도 기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분은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불렀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이라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쓸모 있다고 해서 안 된다.

결국 해보면 증인이 되지 않는다. 증인이 안 된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라야 증인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로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로 가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보다 더 가난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또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청빈낙도(淸貧樂道)라고 해서 가난을 숭상했다. 높이 평가하고 무소유를 높이 평가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다. 내가 나를 아무리 가난하게 해도 물질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인격이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 만큼 다른 것이 또 채워져 버린다. 아무리 낮아지려고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지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기가 뭘 다 버렸다는 사람이 있다. 버리기는 뭘 버리는가?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왔다. 배가 그것이 값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다고 한다. 우습지 않은가? 시골의 가난뱅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고 한다. 이*철씨가 그런 말을 하면 모르지만 베드로 같은 어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고 한다. 뭐가 모든 것을 버렸는가? 우습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셔야 버리게 된다. 버리게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리는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다. 할 수 없으니까 빼앗기는 것이지 할 수 있으면 빼앗기겠는가? 맞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맞는 것이지 자원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할 수 없으니까 맞는 다.

격투기를 보면 아무리 연습해도 맞는 걸 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 한 방이다. 잠이 안 오면 볼 것이 없으니까 격투기를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다른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 축구를 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야구를 봐도 생각을 해야 된다.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나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없애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격투기다. 무조건 치고 박고 하니까 보다 보면 얼마나 연습을 하고 왔겠는가? 그런데 어느 사이에 주먹 한 방이 들어가 버리면 쓰러져 버린다. 자기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내가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맞지 않으려고 얼마나 훈련을 했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안 되니까 맞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지지 않는다. 무소유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무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비우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우려 해도 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모두 자기가 일상적으로 행한 그런 것이나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내 영혼이 은

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한다. 그 중한 죄 짐이 무엇인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일이다. 그것을 중한 죄 짐이라고 한다. 중한 죄 짐을 벗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가? 어디나 천국이라고 한다. 회개를 다 하고나니까 천국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 천국이 맨 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다음 날 또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회개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았다.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천국이 되는가? 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섰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 고치기가 쉽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어디로 고치겠는가?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말이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러면 대책이 없다.

정말 그런 사람도 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엉뚱한 일이 생기니까 할 말이 없다.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다. 거기다 대고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처럼 당신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할 말이 없다.

또 정말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도 가혹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러고 나서면 할 말이 없다. 대책이 없다. 목사는 그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다. 뭐라고 기도를 해주어야겠는가? 참 딱했다. 본인은 몇 년간 끙끙 거리고 있기도 했다. 옆에서 보니까 말도 못 해주겠고, 어떻게 참여도 안 되고 곤욕을 치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모른다. 정상적인 것을 봐야 비정상적이라고 안다. 정상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아는가? 선약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먹는 것도 모르지만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쫓겨나나 안 쫓겨나나 똑 같다.

좋은 궁궐에 살다가 바깥으로 나와야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어디인지도 몰랐으면 내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 같다. 거지에게는 다리 밑이나 거적 밑이나 똑 같다. 자기가 사는 곳이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으러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경에만 써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아두었다. 에덴동산이 있었다고 하더라.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쫓겨났다고 하더라. 그것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가? 와 닿지 않는다.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모르니까 그냥 두는 것이다. 성경에 있지만 앞부분은 그냥 두는 것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

이 말도 옛날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보지 않았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다. 뭘 했느냐? 이 말은 들어봤지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들어보지 않았다.

우리는 고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돌아가든지 말든지 한다. 회개하면 어디로 가는가? 돌아갈 데가 없다. 그래서 맨날 해도 똑 같은 것이다.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 그 죄는 늘 짓는 죄다.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니까 늘 짓는 죄니까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는 죄다.

마지막은 우리와 그분이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없다.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겠는가? 그분이 집을 마련해 주어야 갈 수 있다. 내가 가서 거할 집을 만들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하였다.

그분이 집을 마련해야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분이 집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을 보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안다. 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알겠는가?

나도 모범적인 인간이었다. 집에서 한 번도 잘못해서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을 받았지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교회생활도 잘 했다. 나만큼 철저하게 한 사람이 없다. 동네일도 열심히 했다. 우리가 이사 나온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모두 쌀을 거두었다. 한 가마니인가 두 가마니인가 거두어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로 지옥에 가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내가 두드러지게 나쁜 놈이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부흥회를 들어봐도 안 되었다. 부흥사 자기는 뭐가 어떠니 저떠니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술을 먹어 봤는가?

담배를 피워봤는가? 어디 가서 누구와 싸워봤는가? 누구와 원수를 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출발도 안 된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유턴을 하지 무조건 유턴하라고 하겠는가? 어디로 돌아갈 자리가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창3:9) 이 말을 들어야 ‘예, 여기에 있습니다.’할 것이다. “어디 있느냐.”는 말 자체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들리기를 ‘무엇을 했느냐? 뭘 하느냐?’ 이 말밖에 들리지 않는데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집을 마련한 것이다. 내 있을 곳을 마련한 것이다. 내 정체성을 위해서 자기가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것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이다. 사람이 죽으면 흠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는 다 안다. 그것을 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 이제 생각하니까 그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잃었던 내 생명을 찾았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그것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다. 나와 큰 관계가 없고 상관도 없다. 그것이 내 속에 감춰진 고민이었지만 누구에게 말도 못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 말도 못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도 못했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말도 더구나 못 했다. 알고 보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 사람이었다. 또 관계도 없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밖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이다. 예수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예수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또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몰랐다. 좋은 말씀이 있다. 좋은 말씀 때문에? 안 된다.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

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요1:1)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구나. 그냥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구나.

예수 안에는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 같다. 아버지께로 가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 같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냥 길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못 간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길이 없으면 못 간다.

“내가 곧 길ियो.”(요14:6) 그래서 사람들은 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런데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다른데 가는 길이 아니다. 그분이 말하는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분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분이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된 그 자리가 방법이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도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가? 죽으면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 죽는다고 아버지께로 가겠는가? 죽어도 그 사람이 죽는다고 다른 사람이 되겠는가?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यो, 실재요, 생명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거기가 어디인가? 십자가 안에 마련해 놓은 집이 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해 놓았다. 있을 곳을 마련해 놓았고, 내 정체성을 보여 놓았으니까 마련해 놓았다. 이제는 꿈쩍없이 다른 곳에는 갈 수 없다. 알고 나면 다른 곳에는 못 간다. 갈 데가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요1:1)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다. 이것은 회랍인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문자만 가져다 썼지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그 말씀이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깐 비로소 빛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빛이 있으라 하니깐 빛이 있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주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자기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해야 되지, 내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한다고 되겠는가? 안 된다. 고생만 잔뜩 하니까 그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분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왜 쫓아가는가? 가만히 있어야 나를 찾아오는데 내가 휘젓고 돌아다니면 어디로 와서 나를 찾겠는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신다. 얼마나 쉬운가! 두고두고 생각해 보자. 요한복음 1장만 생각해 한 없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살아도 그의 증인으로 살고 죽어도 그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란다.

지난번에 『주의 손에 이끌려』를 찍었는데 모자라서 다시 찍었다. 그때 못 받아 가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받아 가시기 바란다. 그리고 『로마서』가 3권까지 나왔다고 한다. 목회자분들 모두에게 한질씩 드리기로 했다.

책이 출판한지 오래 되어서 미비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책을 써 보니까 다시 쓰고 싶어진다. 그래서 진짜 대가들은 책을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쓰겠는가? 써 놓고 보면 아닌 것 같다. 미진하다는 말이다. 지금 쓰면 이렇게 쓸 텐데..., 그렇게 된다. 이것은 원고가 다 마감되어서 또 쓸 수도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출판한 것이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발전하기 바란다. 기초는 해 놓았으니까 기초 교과서로 생각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계시는 우리에게서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전에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과학의 세계를 보면 앞의 사람이 해놓은 것을 딛고 올라서서 또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계시는 오다가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없다는 식으로 끝을 맺어 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쓰일 때로 끝나 버리고, 그 다음부터 발전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해석이라도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졸작의 책들만 나오게 된다. 물론 아닌 것은 제해야 되겠지만 좋은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과학이 발전한 것처럼 발전하지 않겠는가?

내가 해 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때와 ‘십자가에 두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가 달라진다. 그 명도가 달라진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명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한다.

책을 누구에게 선물하면서 쓰는 말이 있다. ‘혜존(惠存)’이라는 말을 쓴다. 혜존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했다. 은혜 惠자 있을 存자다. 무슨 뜻인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데, 어디 고전에서 나온 말인 듯싶다. 혜존(惠存)은 ‘받아 간직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자기의 저서나 작품 따위를 남에게 드릴 때에 상대방의 이름 아래에 쓰는 말이라고 한다. 다 사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했으니까 내 마음은 읽어 주시고 거기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